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

홍 승 표(청주교육대학교 시간강사)

《 요약 》

본 연구는 아동기 사회적 지지 수준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전체, 일반, 사회, 학교, 가정) 및 주관적 안녕(정적·부적 효능, 정적·부적 정서, 정적·부적 대인 관계, 포괄 만족) 하위 요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70명(남 29명, 여 41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 검사를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 하위 요인의 평균, 표준편차, 다변량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 수준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p < .01$), 주관적 안녕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 < .01$). 또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하위 요인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요인간 정적 혹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주관적 안녕 형성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부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적절한 안내 및 사회적 지지 증진에 적절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

I. 서론

대인 관계에서 신뢰감 형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 획득,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등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개개인의 중요한 모토가 된다. 개인과 집단간 집합체 속에서 자신과 관련이 있는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개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경험과 적응을 중재하는 변수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친밀한 사회관계의 다양한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Lin, Ye, & Ensel, 1999). 사회적 지지는 개인간 또는 개인과 집단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에 의해 제공되며, 정서적 제어력을 증진시키고, 행동 지침을 제공하여 자아정체감과 행동 수행에 관한 환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서진교, 2000).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데, 이러한 지지는 인간의 신체적·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주며(House, 1981),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 완충제 작용을 한다(Cobb, 1979).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여 문제 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한다(Sasason, Levine, Basham, & Sarason, 1983). 또한, 한 개인이 대인 관계에서 신뢰와 위로를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지원 역할을 하며(Cohen & Hoberman, 1983), 높은 사회적 지지는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Cohen & Wills, 1985).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는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생태체계론 시각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지 요인이 많으면,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겪을 확률이 적어진다(Mangham et al, 1995). 대처 방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같은 지지 요인들은 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Laygo, 1996; Palmer & Dryden, 1996; Thoits, 1995).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유형적 지지, 평가적 지지, 소속감 지지, 자아존중감 지지 등 4차원으로 분류하고,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지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부정적·공정적 견해로 인생의 초기에 형성되어 비교적 변하지 않으며 정신 건강의 기초가 되고 질적인 삶을 유지시켜 주는 기반이 된다.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여 자신의 수행을 훌륭한 것으로 평가할 때 높아지는 반면에 이를 이루지 못할 때에는 자신을 낮게 평가하여 저하하게 된다(Reitzes, Mutran, & Fernandez, 1996; Taft, 1985).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측면(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정신건강, 심리적 안녕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Rook, 1984)으로 알려져 있다. 김애경(2003)은 사회적 지지와 초기 청소년 자아존중감이 서로 정적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Robinson, 1990; 안재진·김지혜, 2004).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아동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스트레스, 우울, 즐거운 정서, 포괄 만족 등 개인 심리적 측면인 주관적 안녕에 사회적 지지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다양한 연구를 발견할 수 있다(백은령, 2003).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 활동이 있고(Kreuter et al., 1998; Clayton & Chubon, 1994), 가족과의 관계, 친구 및 직장 동료와의 관계 및 지지적 태도, 이웃과의 관계 및 지지적 태도, 사회적 지원(공식, 비공식), 지지모임 등도 포함된다(Mares, 2000; Seybolt, 2000). 또한, 높은 사회적 지지(심리적 지지, 인지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때보다 더 좋은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을 보인다(Cohen & Wills, 198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의 관련성 인식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지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지지 수준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은 어떤 상관을 보이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 소재 시 지역에 위치한 D초등학교 고학년[5학년 32(45.7%)명, 6학년 38(54.3%)명] 70명으로 하였다. 남자 29(41.4%)명, 여자가 41(58.6%)명 이었고, 평균 연령은 11.09(*SD* 1.02)세였다.

2. 연구 도구

가. 사회적 지지 척도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의 평가 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 SSAS)와 박지원(1985)의 척도를 참고하였으며, 한미현(1996)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선행연구에 의해 타당화가 이루어진 가족 지지(8문항), 친구 지지(8문항), 교사 지지(8문항)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나 평가를 측정하며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아동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 있는 대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며, 사회적 관계망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지각 정도를 평가한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이르는 5단계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21이었다.

나. 자아존중감 척도

Coopersmith(1967)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척도(SEI)를 참고하였으며, Robinson & Shaver(1975)는 이 척도가 응답자 자신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써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척도는 한미현(1996)이 활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초등학교 아동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 일반적 자아존중감(26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8문항), 학교적 자아존중감(8문항), 가정적 자아존중감(8문항), 허위문항(8문항)으로 총 5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그렇다(1점)’, ‘아니다(0점)’로 1점씩 부여하여 점수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5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71이었다.

다. 주관적 안녕 척도

주관적 안녕을 알아보기 위하여 박병기와 홍승표(2004)가 개발한 주관적 안녕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박병기와 홍승표(2004)의 ‘주관적 안녕 척도 개발 및 타당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타당화가 이루어진 척도이다. 주관적 안녕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는 포괄적인 삶의 만족(5문항), 정적 효능(6문항), 부적 효능(6문항), 정적 정서(6문항), 부적 정서(6문항), 정적 대인 관계(6문항), 부적 대인 관계(6문항)로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부터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이 높은 것이다. 주관적 안녕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602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고(+1 SD < 상위집단; -1 SD < 중위집단 < +1 SD ; -1 SD > 하위집단), 이러한 세 집단 분류는 연속변수인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명명척도화하여, 상위, 중위, 하위집단간 종속변수의 차이 분석 및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자아개념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자의 조작적 분류이다.

차이 분석 검정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사후 검정: Scheffé 검정, 유의수준 $p < .05$ 수준).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 변인	사회적 지지	<i>n</i>	<i>M</i>	<i>SD</i>
일반적 자아존중감	상위 지지	13	44.85	2.48
	중간 지지	49	40.55	3.87
	하위 지지	8	35.88	3.94
	전체	70	40.81	4.36
사회적 자아존중감	상위 지지	13	14.15	1.63
	중간 지지	49	12.18	1.75
	하위 지지	8	10.38	1.60
	전체	70	12.34	1.98
학교적 자아존중감	상위 지지	13	9.85	1.63
	중간 지지	49	11.82	1.75
	하위 지지	8	13.63	1.60
	전체	70	11.66	1.98
가정적 자아존중감	상위 지지	13	14.38	.77
	중간 지지	49	12.96	1.84
	하위 지지	8	11.88	2.17
	전체	70	13.10	1.85
전체적 자아존중감	상위 지지	13	83.23	2.68
	중간 지지	49	77.51	4.73
	하위 지지	8	71.75	5.20
	전체	70	77.91	5.42

<표 1>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 자아존중감에 있어 상위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한 집단(상위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지지의 중간 수준, 하위 수준 순으로 자아존중감도 점차 낮게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적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반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

〈표 2〉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다변량 분석

Source	변 수	SS	df	Ms	F	p	Scheffé
사회적 지지 수준	일반적 자아존중감	409.90	2	204.95	15.21	0.000	상-중, 상-하, 중-하
	사회적 자아존중감	74.86	2	37.43	12.74	0.000	상-중, 상-하, 중-하
	학교적 자아존중감	74.86	2	37.43	12.74	0.000	상-중, 상-하, 중-하
	가정적 자아존중감	34.43	2	17.22	5.71	0.005	상-하
	전체적 자아존중감	679.43	2	339.72	16.86	0.000	상-중, 상-하, 중-하
	오차	일반적 자아존중감	902.69	67	13.47		
사회적 자아존중감		196.91	67	2.94			
학교적 자아존중감		196.91	67	2.94			
가정적 자아존중감		201.87	67	3.01			
전체적 자아존중감		1,350.05	67	20.15			
합계		일반적 자아존중감	117,919.00	70			
	사회적 자아존중감	10,936.00	70				
	학교적 자아존중감	9,784.00	70				
	가정적 자아존중감	12,249.00	70				
	전체적 자아존중감	426,974.00	70				
	일반적 자아존중감	R 제곱 = .312 (수정된 R 제곱 = .292)					
	사회적 자아존중감	R 제곱 = .207 (수정된 R 제곱 = .183)					
학교적 자아존중감	R 제곱 = .275 (수정된 R 제곱 = .254)						
가정적 자아존중감	R 제곱 = .146 (수정된 R 제곱 = .120)						
전체적 자아존중감	R 제곱 = .385 (수정된 R 제곱 = .376)						
Hotelling T = .591		p < .001					

〈표 2〉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의 다변량분석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전체적 자아존중감($p < .001$), 일반적 자아존중감($p < .001$), 사회적 자아존중감($p < .001$), 학교적 자아존중감($p < .001$), 가정적 자아존중감($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 결과,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상위수준과 하위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고, 전체적, 일반적, 사회적, 학교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상위 지지 수준, 중간 지지 수준, 하위 지지 수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 수준은 전체적 자아존중감에 대해 37.6%의 예언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 자아존중감에는 29.2%, 학교적 자아존중감에는 25.4%,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에는 각각 18.3%, 12.0%의 예언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라 사료된다.

2.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 비교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의 평균, 표준편차,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다.

〈표 3〉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아동의 주관적 안녕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변인	사회적 지지	<i>n</i>	<i>M</i>	<i>SD</i>
정적 효능	상위 지지	13	25.38	2.93
	중간 지지	49	21.18	4.35
	하위 지지	8	16.63	4.78
	전체	70	21.44	4.76
부적 효능	상위 지지	13	11.62	4.19
	중간 지지	49	16.10	4.52
	하위 지지	8	17.88	4.73
	전체	70	15.47	4.83
정적 정서	상위 지지	13	29.38	1.50
	중간 지지	49	23.00	5.05
	하위 지지	8	16.00	4.60
	전체	70	23.39	5.78
부적 정서	상위 지지	13	10.15	4.95
	중간 지지	49	15.16	5.65
	하위 지지	8	21.63	5.21
	전체	70	14.97	6.23

〈표 3〉의 계속

정적 대인 관계	상위 지지	13	27.54	2.96
	중간 지지	49	23.14	3.69
	하위 지지	8	20.13	6.53
	전체	70	23.61	4.45
부적 대인 관계	상위 지지	13	7.92	2.99
	중간 지지	49	13.82	6.07
	하위 지지	8	18.88	5.87
	전체	70	13.30	6.32
포괄적 만족	상위 지지	13	20.54	2.47
	중간 지지	49	14.53	4.50
	하위 지지	8	11.13	6.31
	전체	70	15.26	5.18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하위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효능, 정서, 대인에 있어서 부적보다 정적에서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안녕의 정적 하위요인(효능, 정서, 대인) 및 포괄적 만족에서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상위집단에서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중간, 하위수준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부적 하위 요인에서는 사회적 지지 수준 하위 집단에서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중간, 상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칙은 사회적 지지 수준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아동의 주관적 안녕 하위요인 다변량 분석

Source	변 수	SS	df	Ms	F	p	Scheffé
사회적 지지 수준	정적 효능	390.98	2	195.49	11.17	0.000	상-중, 상-하, 중-하
	부적 효능	259.00	2	129.50	6.43	0.003	상-하, 중-하
	정적 정서	911.51	2	455.75	21.86	0.000	상-중, 상-하, 중-하
	부적 정서	657.68	2	328.84	10.92	0.000	상-중, 상-하
	정적 대인 관계	308.48	2	154.24	9.79	0.000	상-중, 상-하
	부적 대인 관계	637.56	2	318.78	10.09	0.000	상-하, 중-하
	포괄적 만족	525.06	2	262.53	13.28	0.000	상-중, 상-하
오차	정적 효능	565.72	2	282.86	2.38	0.100	
	부적 효능	1,172.30	67	17.50			
	정적 정서	1,350.44	67	20.16			
	부적 정서	1,397.08	67	20.85			
	정적 대인 관계	2,018.26	67	30.12			
	부적 대인 관계	1,056.11	67	15.76			
	포괄적 만족	2,117.15	67	31.60			

〈표 4〉의 계속

	정적 효능	1,324.31	67	19.77
	부적 효능	7,959.55	67	118.80
합계	정적 정서	33,749.00	70	
	부적 정서	18,365.00	70	
	정적 대인 관계	40,591.00	70	
	부적 대인 관계	18,366.00	70	
	포괄적 만족	40,399.00	70	
정적 효능	R 제곱 = .250 (수정된 R 제곱 = .228)			
부적 효능	R 제곱 = .161 (수정된 R 제곱 = .136)			
정적 정서	R 제곱 = .395 (수정된 R 제곱 = .377)			
부적 정서	R 제곱 = .246 (수정된 R 제곱 = .223)			
정적 대인	R 제곱 = .226 (수정된 R 제곱 = .203)			
부적 대인	R 제곱 = .231 (수정된 R 제곱 = .209)			
포괄적 만족	R 제곱 = .284 (수정된 R 제곱 = .263)			
<i>Hotelling T</i> = 1.005 $p < .001$				

〈표 4〉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 하위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주관적 안녕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적 효능, 정적 정서, 부적 정서, 정적 대인, 부적 대인, 포괄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고, 부적 효능에서도 유의한 차이($p < .01$)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예언적 설명력은 정적 정서(37.7%), 포괄 만족(26.3%), 정적 효능(22.8%), 부적 정서(22.3%), 부적 대인(20.9%), 정적 대인(20.3%), 부적 효능(1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 수준은 주관적 안녕의 모든 하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며, 주관적 안녕의 정적·부적 요인으로서의 분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예라 사료된다.

3.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상관 비교

가.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Pearson 적률 상관 분석

아래 〈표 5〉는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Pearson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우선, Pearson 적률 상관 계수가 ‘ $r > .70$ ’인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수쌍의 유무를 확인하였고 아울러, ‘상관의 방향(±)’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향을 가지는지를 먼저 파악하였다. Pearson 적률 상관 계수가 ‘ $r > .70$ ’인 변수는 확인 되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과 주관적 안녕의 하위요인에서 정적 상관과 부적 상관으로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학교적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하위영역 상관에 있어서, 전체적,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반대되는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5〉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Pearson 적률 상관 분석(N=70)

항목	정적 효능	부적 효능	정적 정서	부적 정서	정적 대인	부적 대인	포괄 만족
일반적 자아존중감	0.667***	-0.543***	0.601***	-0.543***	0.477***	-0.521***	0.646***
사회적 자아존중감	0.597***	-0.518***	0.516***	-0.546***	0.516***	-0.577***	0.484***
학교적 자아존중감	-0.597***	0.518***	-0.516***	0.546***	-0.516***	0.577***	-0.484***
가정적 자아존중감	0.247*	-0.318**	0.451***	-0.383**	0.117	-0.298*	0.433***
전체 자아존중감	0.621***	-0.546***	0.638***	-0.567***	0.423***	-0.520***	0.667***

* $p < .05$, ** $p < .01$, *** $p < .001$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 자아존중감은 포괄 만족($r = .67, p < .001$), 정적 정서($r = .64, p < .001$), 정적 효능($r = .62, p < .001$)에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부적 정서($r = -.57, p < .001$), 부적 효능($r = -.55, p < .001$), 부적 대인($r = -.52, p < .001$)에는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의 하위영역에서 정적 효능($r = .67, p < .001$), 포괄 만족($r = .65, p < .001$), 정적 정서($r = .60, p < .001$)에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적 효능($r = -.54, p < .001$), 부적 정서($r = -.54, p < .001$), 부적 대인($r = -.52, p < .001$)에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의 하위요인에 있어 정적 효능($r = .60, p < .001$), 정적 정서($r = .52, p < .001$), 정적 대인($r = .52, p < .001$), 포괄 만족($r = .48, p < .001$)에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 대인($r = -.58, p < .001$), 부적 정서($r = -.55, p < .001$), 정적 효능($r = -.52, p < .001$)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의 하위요인 정적 정서($r = .45, p < .001$), 포괄 만족($r = .43, p < .001$), 정적 효능($r = .25, p < .05$)에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부적 정서($r = -.38, p < .001$), 부적 효능($r = -.32, p < .001$), 부적 대인($r = -.30, p < .05$)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의 하위 요인에 있어 부적 대인($r = .58, p < .001$), 부적 정서($r = .55, p < .001$), 부적 효능($r = .52, p < .001$)에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적 효능($r = -.60, p < .001$), 부적 정서($r = -.52, p < .001$), 정적 대인($r = -.52, p < .001$), 포괄 만족($r = -.48, p < .001$)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자아존중감 하위영역 중 학교적 자아존중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른 하위요인(전체적,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상관과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즉,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가진 집단에서, 학교적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 하위 요인 간 정적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부적 효능, 부적 정서, 부적 대인 관계, 포괄적 만족 요인 이

었고,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가진 집단에서, 학교적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 하위요인의 부적 상관을 보인 요인으로서는 정적 효능, 정적 정서, 정적 대인 관계 등으로 나타났다.

나. 사회적 지지 수준별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 상관 분석

〈표 6〉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 상관 분석(N=70)

사회적 지지 수준	자아 존중감	주관적 안녕							
		정적 효능	부적 효능	정적 정서	부적 정서	정적 대인	부적 대인	포괄 만족	전체
상(n=13)	일반존중	.560*	-.591*	-.296	-.263	.205	-.464	.232	-.291
중(n=49)	일반존중	.503***	-.384**	.387**	-.378**	.291*	-.276	.506***	.171
하(n= 8)	일반존중	.755*	-.674	.677	-.441	.394	-.791*	.666	.352
상(n=13)	사회존중	.686*	-.027	.452	-.096	.518	-.633*	.123	.214
중(n=49)	사회존중	.465**	-.549***	.316*	-.510***	.373**	-.463**	.421**	-.113
하(n= 8)	사회존중	.171	.045	.019	.105	.241	-.116	-.246	.105
상(n=13)	학교존중	-.686*	.027	-.452	.096	-.518	.633*	-.123	-.214
중(n=49)	학교존중	-.465**	.549***	-.316*	.510***	-.373**	.463**	-.421**	.113
하(n= 8)	학교존중	-.171	-.045	-.019	-.105	-.241	.116	.246	-.105
상(n=13)	가정존중	-.071	.127	.511	-.609*	.231	-.640*	.233	-.268
중(n=49)	가정존중	.097	-.172	.261	-.208	.010	-.064	.214	.035
하(n= 8)	가정존중	-.005	-.559	.502	-.334	-.463	-.451	.649	-.383
상(n=13)	전체	.497	-.510	-.127	-.417	.256	-.612*	.282	-.346
중(n=49)	전체	.450**	-.381**	.418**	-.390**	.242	-.251	.498***	.153
하(n= 8)	전체	.570	-.744*	.723*	-.473	.106	-.788*	.775*	.107

* $p < .05$, ** $p < .01$, *** $p < .001$

〈표 6〉은 〈표 5〉의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상관관계와 비교하여, 아동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에 어떤 상관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상위 집단에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정적 효능과 부적 효능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p < .05$). 사회적 지지 중위 집단에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 전 하위 영역(부적 대인 제외)에서 상관을 보인다. 사회적 지지 하위 집단에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정적 효능과 부적 대

인 영역에서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상위 집단에서는 사회적·학교적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정적 효능과 부적 대인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p < .05$). 사회적 지지 중위 집단에서는 사회적·학교적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 전 하위 영역에서 정적, 혹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 하위 집단에서는 사회적·학교적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하위 요인 간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사회적 지지의 상위 집단에서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부적 정서와 부적 대인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p < .05$). 사회적 지지의 중위 및 하위 수준에서는 자아존중감 하위 영역과 주관적 안녕 하위 영역 간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p > .05$).

사회적 지지의 상위 집단에서 전체적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부적 대인 영역에서 상관을 보였고($p < .05$), 중위 집단에서는 전체적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정적 효능($p < .01$), 부적 효능($p < .01$), 정적 정서($p < .01$), 부적 정서($p < .01$), 포괄 만족 영역($p < .001$)에서 상관을 보였다. 하위 집단에서는 전체적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부적 효능($p < .05$), 정적 정서($p < .05$), 부적 대인($p < .05$), 포괄 만족($p < .05$) 영역에서 상관을 보였다.

〈표 5〉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하위 영역에서 상관을 보이고 있지만, 〈표 6〉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하위 영역에서 서로 다른 상관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지지 수준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에 상이한 관련성을 가지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예라 사료 된다.

IV. 논의

본 연구는 아동기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에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 수준은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특히, 전체적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R^2 = .376$), 일반적 자아존중감($R^2 = .292$)과 학교적 자아존중감($R^2 = .254$) 순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이것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실례이며, 아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수용 혹은 거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Pelham & Swann, 1989)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이 어떤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가를 유추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지지 수준은 아동기 자아

존중감에 있어, 학교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 순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아동기의 전체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정적보다는 사회적, 학교적 자아존중감이 전체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 수준은 주관적 안녕 하위 요인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특히,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정적 정서($R^2 = .377, p < .001$)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포괄적 만족($R^2 = .263, p < .001$)과 정적 효능($R^2 = .228, p < .001$)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의 주관적 안녕의 하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순을 살펴보면, 부정 정서($R^2 = .223, p < .001$), 부정 대인($R^2 = .209, p < .001$), 정적 대인($R^2 = .203, p < .001$) 순이었다. 비교적 낮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위 영역은 부정 효능($R^2 = .136, p < .01$) 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 정적 효능과 부정 효능, 정적 대인 관계 및 부정 대인 관계에 각각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박병기와 송정화(2007)의 연구인 주관적 안녕의 2×3 다차원 요인구조 분석에서처럼 다요인으로 분화됨을 입증한 결과이며, 주관적 안녕 하위 요인이 정적, 부정적으로 따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에 관한 Ryan과 Deci(2002)의 연구에서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유능성(competence), 자율성(autonomy), 관계성(relatedness) 등을 다루는데, 이러한 기본욕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성, 유창성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수준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의 하위 요인에 정적·부정 효능, 정적·부정 정서, 정적·부정 대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Helgeson, 2003)인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대인관계 및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는 도움으로, 안정적 대인관계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Norbeck, Lindsey & Carrieri, 1981). 개인의 기본적 사회욕구로서 애정, 자존심, 소속감, 정체감, 안정감 등을 포함하고, 이러한 개인의 기본 욕구 충족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 안정적 대인관계, 개인의 기본적 사회욕구 충족 등의 사회적 자원은 주관적 안녕과 관련을 갖는다(Cobb, 1979)는 연구결과를 본 연구는 지지한다.

셋째, 아동기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은 많은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성격 특성 가운데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의 강력한 예언변인 중 하나인 것(Reid & Ziegler, 1980)과 일치하며, 연상망(association networks)이론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들보다 부정적 분위기의 연상이 풍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복잡한 연상망이 부정적 감정을 취하게 만든다

(Isen, 1987)는 연구와 일치한다.

전체적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의 하위 요인인 정적 효능, 정적 정서, 정적 대인, 포괄 만족에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 효능, 부적 정서, 부적 대인관계에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도 같은 정적, 부적 상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아동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학교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다른 하위 영역(전체적,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상반되는 상관 결과가 나왔다. 하위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상위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보다 학교적 자아존중감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주관적 안녕의 상관에서도 부적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Branden(1992)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이 삶의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 유능성이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행복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힘이라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개인적 유능감)과 자기존경감(개인적 가치감)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자아존중감의 양대 축(pillar)으로서 한 쪽이라도 결핍되면 자아존중감은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였다. Rosenberg(1979)는 자아존중감 형성의 원리를 반영된 평가, 사회적 비교, 자아귀인, 심리적 중심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Bruer와 Snyder(1972), Marcia(1980)는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성 연구에서 성취 지위에 있는 학생들과 유혜 지위에 있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조기완료와 혼미 지위에 있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학교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적 자아존중감이 전체적 혹은 일반적 자아존중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정적, 사회적(또래 친구) 자아존중감과는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가정적, 사회적(또래 친구) 자아존중감보다 학교적 자아존중감에서 자기효능감, 즉 개인적 유능감의 요인이 더 활발하게 작용한 결과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학교활동에 대한 흥미도와 태도, 시험 및 학업성취도,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등의 학교 환경이 아동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연구(Turner, 1990; Abraham, 1983; Rosenfeld, 1972)에서처럼 학교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유관 후속 연구가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낙천성, 자아존중감, 외향적인 성격은 개인의 행복,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Lucas, Diener & Suh, 1996), 교실 속에서의 사회 통합, 학습동기, 학습흥미는 학교생활에서의 안녕과 관련이 있음(Opdenakker & van Damme, 2000)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 수준 정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성 분석에서, 변수들 간의 Pearson 적률상관 계수를 구하여 ' $r > .70$ '의 높은 상관이 존재하는 지를 검토하였다. 상관계수가 ' $r > .70$ ' 되면, 다중 공선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Tabachnick & Fidell, 1996). 본 연구에서는 요인간 적률 상관계수가 ' $r > .70$ '인 하위 요인은 발

견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성 분석과 사회적 지지 수준을 고려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성 분석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표 5〉, 〈표 6〉 참조). 이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나타내는 예로 사료된다. 즉,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라 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은 상이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 수준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의 하위 요인간의 관계성 분석을 통해 상호 관련성이 확인 되었다.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주관적 안녕 형성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부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며 사회적 지지 수준 증진에 대한 적절한 홍보 및 안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사회적 지지 수준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을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으로 확대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좀 더 많은 피험자 수에 근거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 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박병기, 송정화(2007). 주관적 안녕의 2×3 다차원 요인구조. **교육심리연구**, 21(3), 591-611.
- 박병기, 홍승표(2004). 주관적 안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8(3), 159-179.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백은령(2003).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요인과 사회통합 정도를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서진교(2000).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사회적 망, 사회적 지지 및 건강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1), 59-72.
- 안재진·김지혜(2004).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3(3), 61-88.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 문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raham, K. G. (1983). The relation between identify status and locus of control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257-264.
- Branden, N. (1992). *The Power of Self-Esteem*. Deerfield Beach,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 Bruer, R. H., & Snyder, R. (1972). Ego identify and motivation: An empirical study of achievement and affiliation in Erikson's theory, *Psychological Reports*, 30, 951-955.
- Clayton, K. S., & Chubon, R. A. (1994). Factor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of long-term spinal cord injured person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75(6), 633-638.
- Cobb, S. (1979). "Social Support and Health Through the Life course", In Matilda, M. Riley(ed), *Aging form Birth to Deat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Boulder: Westview Press.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 Appl Soc Psychol*; 13, 99-12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 Bull*, 98, 310-357.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 (1981, Reprint Edition).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Helgeson, V. S. (2003).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Research, 12*, 25-31.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California: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 Isen, A. M. (1987). Positive affect, cognitive processes, and social behavior. *Adv. Exp. Soc. psychol. 20*. 203-253.
- Kreuter, M., Sullivan, M., Dahllof, A. G., & Siosteen, A. (1998). Partner relationships, functioning, mood and global quality of life in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and traumatic brain injury. *Spinal Cord, 36*, 252-261.
- Laygo, R. M. (1996). The Power of Competing Cognitive Theories of Emotions, Stress Coping, and their in interactions in predicting emotional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Ph. D. diss. Georgia State University.
- Lin, N., Ye, X., & Ensel, W. M. (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344-359.
- Lucas, R. E.,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Mangham, C., McGrath, P., Reid, G., & Steward, M. (1995). *Resiliency : Relevance to health promotion detailed analysis*. Atlantic Health Promotion Research Center Dalhousie University.
- Marcia, J. E. (1980). Identify in adolescence, In T.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159-187)*, New York: John Wiley & Sons.
- Meilman, P. W. (1979), Cross sectional age changes in ego identify statu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20-321.
- Mares, A. S. (2000). *Determinants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among seriously mentally ill residents of board and care homes*.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 Norbeck, J., Lindsey, A., & Carrieri, V. (1981).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sing Research, 30*, 264-269.
- Opdenakker, M. C. and Van Damme, J. (2000). Effects of schools, teaching and classes on achievement and well-being in secondary educat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chool outcomes.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11*, 165 - 196.
- Palmer, S. & Dryden, W. (1996). *Stress Management and Counselling-Theory, Practice, Research and Methodology*. CASSELLI.
- Pelham, B. W., & Swann, W. B. (1989). From self-concept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72-680.

- Reid, D. W., & Ziegler, M. (1980). Validity and stability of a new desired control measure pertaining to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5, 395-402.
- Reitzes, D. C., Mutran, E. J., & Fernandez, M. E. (1996). Preretirement influences on postretirement self-esteem. *J Geronto Nur*, 51B(5), 242-249.
- Robinson, K. (1990).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kills,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burden in adult caregiver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 788-795.
- Robinson, T. P., & Shaver, P. R. (1975).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Rook, K. (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097-1108.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feld, R. (1972). *The relationship of ego identify to similarity among self, ideal self, and probable occupational role concept among college ma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Ryan, R. M. & Deci, E. L. (2002).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arason, I. G., Levine, H. M., & Basham, R. B., Sarason, B. R. (199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1, 127.
- Seybolt, D. C. (2000). *Residential factors predicting community integr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persons with serious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 Tabachnick, B., & Fidell, L. (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3rd ed.)*. New York: Harper Collins.
- Taft, L. B. (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 in Nur Science*, 8(1), 77-84.
-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 53-79.
- Turner, W. L. (1990). *Ego identify development in black college stud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ethnic identify and family environ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논문 접수 : 2008년 8월 29일 / 수정본 접수 : 2008년 10월 5일 / 게재 승인 : 2008년 10월 15일

ABSTRACT

Effects of Social Support Level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Seung-Pyo Hong

(Lecture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levels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ubject well-being, and ver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whole, general, society, and school and home) and subject well-being(positive and negative efficacy,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positive and negative personal relations, and comprehensive satisfaction). 70 5th and 6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 tests for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ubject well-being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data gathered, the mean and standard variation of the sub-elements of self-esteem and subject well-being were calculated and a multivariate analysis and a correlation analysis were operated.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support level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esteem($p<.01$) and subject well-being($p<.01$).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on the sub-elements of children's self-esteem and subject well-being showed positive or negative correlations. From the results, appropriate guidances for social support and its enhancement. should be given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the elementary school period, children start to develop their self-esteem and form their subject well-being.

Key words : social support, self-esteem, subject well-being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순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를 잘 도와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우리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해 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자아 존중감 측정 도구

순	문	항	그렇다	아니다
1	나는 많은 시간을 멍하니 공상을 하며 보내는 때가 많다.		①	②
2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		①	②
3	가끔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①	②
4	지금보다 좀 어렸으면 좋겠다.		①	②
5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는 고쳐야 할 점이 많다.		①	②
6	어떤 일을 어려움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7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해야만 그 일을 한다.		①	②
8	새로운 것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①	②
9	종종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다.		①	②
10	나는 대체로 쉽게 포기한다.		①	②
11	나는 대체로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		①	②
12	나는 행복하다.		①	②
13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한다.		①	②
14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다.		①	②
15	나에게는 잘 되는 일이 별로 없다.		①	②
16	나는 스스로 한 결심을 지킨다.		①	②
17	내가 남자(여자)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18	나는 내 자신을 하찮게 생각한다.		①	②
19	가끔씩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때가 있다.		①	②
20	나는 남들과 같이 잘 생긴(예쁜)편이 아니다.		①	②
21	나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비교적 말하는 편이다.		①	②
22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23	나는 실패자다.		①	②
24	꾸지람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한다.		①	②
25	나를 귀찮게 하는 일은 별로 없다.		①	②
26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②
27	나는 내 또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①	②
28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대단히 즐겁다.		①	②
29	나는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편이다.		①	②

순	문	항	그렇다	아니다
30	나보다 어린 아이와 잘 어울리는 편이다.		①	②
31	친구들은 내 의견을 잘 따른다.		①	②
32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33	친구들은 나를 잘 놀린다.		①	②
34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 편이다.		①	②
35	학급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①	②
36	나는 학교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37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①	②
38	학급에서 지명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39	학교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		①	②
40	학교에서 종종 당황할 때가 있다.		①	②
41	선생님은 나를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42	학교에서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다.		①	②
43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①	②
44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한다.		①	②
45	부모님은 내 감정에 대해 대체로 신경을 써 주신다.		①	②
46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신다.		①	②
47	집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		①	②
48	집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다.		①	②
49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신다.		①	②
50	내 부모님은 강제적으로 어떤 것을 시킨다고 느낀다.		①	②
51	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걱정하는 경우가 없다.		①	②
52	나는 항상 옳은 일을 한다.		①	②
53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다.		①	②
54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①	②
55	나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①	②
56	절대로 수줍어하지 않는다.		①	②
57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58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안다.		①	②

주관적 안녕 척도

내 용	확실히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 변화에 잘 대처한다.	1	2	3	4	5
2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 낸 일이 있다.	1	2	3	4	5
3 매사에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4 어려운 과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	1	2	3	4	5
5 다른 사람에게서 능력을 인정받는다.	1	2	3	4	5
6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다.	1	2	3	4	5
7 생활에서 곤란을 겪는다.	1	2	3	4	5
8 과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다.	1	2	3	4	5
9 중요한 일은 맡을 자신이 없다.	1	2	3	4	5
10 나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	1	2	3	4	5
11 나의 미래는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 없다.	1	2	3	4	5
12 실패하면 어쩌나 하고 생각한다.	1	2	3	4	5
13 생활에서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14 생활에서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15 생활에서 유쾌한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16 생활에서 기쁜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17 나 자신을 사랑한다.	1	2	3	4	5
18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1	2	3	4	5
19 생활에서 괴로운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20 생활에서 짜증을 내게 된다.	1	2	3	4	5
21 생활에서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22 생활에서 슬픈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23 나 자신에게 화를 내게 된다.	1	2	3	4	5
24 생활에서 창피한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25 주변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1	2	3	4	5
26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1	2	3	4	5
27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1	2	3	4	5
28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	1	2	3	4	5
29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30 관계를 오래 지속해 온 사람이 있다.	1	2	3	4	5
31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1	2	3	4	5
32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가고 싶지 않다.	1	2	3	4	5
33 혼자 있는 것이 좋다.	1	2	3	4	5
34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1	2	3	4	5
35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만한 사람이 없다.	1	2	3	4	5
36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1	2	3	4	5
37 나의 삶은 대체로 나의 이상에 가깝다.	1	2	3	4	5
38 내 삶의 여건들은 매우 좋다.	1	2	3	4	5
39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40 내가 원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루었다.	1	2	3	4	5
41 다시 태어나도 같은 삶을 살고 싶다.	1	2	3	4	5